

## 번역하는 중국\*

- 근대번역그룹의 탄생과 외국문학의 중국적 변용(1903~1937) -

金素貞\*\* · 徐貞姬\*\*\*

<目次>

I. 들어가는 글	IV. 1928년 이후 좌익문예계 번역그룹
II. 청말 중국지식인 번역그룹	V. 1930년대 서양명저번역그룹
III. 상무인서관편역소(商務印書館編譯所) 번역그룹	VI. 마무리를 대신하며

### I. 들어가는 글

중국번역사는 대체로 5번의 고조기를 보이는데, 불경번역기(2C~11C초), 예수회선교사번역기(16C말~18C초), 서학(西學)번역기(19C중엽~20C초), 소설번역기(20C전반기), 사회과학번역기(1980년대)가 그것으로 그 중 청말민초 시기는 중국번역사상 문화번역이 가장 번성했던 시기로 유명하다.<sup>1)</sup> 서구열강의 침입으로 중국이 국가존망의 위기에 처해있던 청말민초 시기에 번역은 서양의 우수성을 배울 수 있는 유효한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번역의 가도를 달리게 되었으며 전대(前代)의 번역 고조기와 비교했을 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외국문학의 번역이 급증했다는 점이다.<sup>2)</sup> 이는 청 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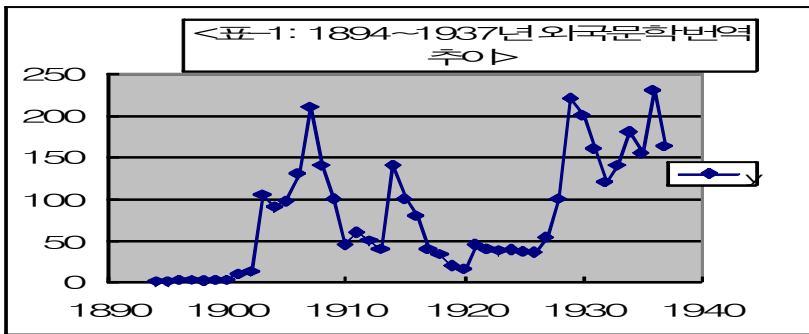
\* 이 논문은 2011학년도 부산대학교 박사후연수과정 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釜山大 중어중문학과 강사

\*\*\* 釜山大 중어중문학과 교수

1) 孔慧怡, <重寫翻譯史>, 《二十一世紀》網絡版4, 2002, 圖1.

조 말기 개혁가들의 관심사가 과학기술 텍스트로부터 문학 특히 소설 장르로 옮겨갔기 때문이다. 그들은 정치를 개량하고 국민을 계몽하여 국가를 근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소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고 그로인해 외국 소설은 중국 번역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만큼 빠른 속도로 번역 출간되었다. 그리하여 출판계에서는 대형 번역문학총서를 비롯하여 단행본으로 된 번역문학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전반기 중국의 외국문학 번역출판물 수량의 연도별 추이는 다음의 <표 1><sup>3)</sup>과 같다.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근대번역은 1907년, 1929년~30년, 1936년 최고조에 달했다. 본고는 근대 중국의 외국문학 번역 개황과 특징을 시기

- 2) 1850년에서 1899년간 번역된 서양서적은 모두 567권이며 그 중 응용과학이 40.6%, 자연과학이 29.8%, 역사와 지리학이 10%, 사회학이 8.1%를 차지했다. 여기서 철학과 문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기 1.8%와 0.5% 정도로 미미했다. Tsuen-hsuei Tsien, "Western Impact on China Through Translation", The Far Eastern Quarterly 13:3, 1954, 315쪽.
- 3) 樽本照雄, 《清末小説研究集稿》, 齊魯書社, 2006, 167쪽; Leo Tak-hung Chan, "What's Modern in Chinese Translation Theory? Lu Xun and the Debates on Literalism and Foreignization in the May Fourth Period" TTR: Traduction, Terminologie et Redaction 14:2, 2001, 222쪽; 賈植芳, 《中國現代文學總書目·翻譯文學卷》, 知識產權出版社, 2010, 373-416쪽.

별로 고찰하기 위해 번역량 고조기에 활동했던 대표적인 번역그룹을 크게 4분(分)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대체로 근대 중국의 문학번역은 청말 중국 지식인 번역그룹, 상무인서관번역소(商務印書館編譯所) 번역그룹, 1928년 이후 좌익문예계 번역그룹, 1930년대 서양명저번역그룹 등이 주도했다. 번역그룹을 개별적으로 고찰하는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독립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의 번역활동에 내재한 상호 연관성을 탐색하여 궁극적으로는 외국문학이 근대 중국이라는 목적언어문화권에서 변형되어간 맥락을 통시적으로 고찰하기 위해서이다. 학술지 논문의 짧은 지면의 한계로 인해 본고에서는 20세기 전반기 번역계의 상황을 개괄적으로 고찰하는 정도에 그칠 수밖에 없음을 앞서 밝힌다.

## II. 청말 중국지식인 번역그룹

1898년을 기점으로 중국 번역계에는 서양인의 활약이 줄어드는 반면 중국 지식인이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는 번역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하였다. 사실, 근대 중국의 번역은 서양선교사 번역기구(The London Mission Society Press, 1844년)와 청 정부가 설립한 강남제조국(江南製造局) 번역국(1867년)에서 발단하였는데, 이들 19세기 번역기구가 추진한 번역사업은 서양인이 주도하였다. 중국어 능력을 갖춘 서양인 번역가들은 대개 기독교개혁과에 속하는 중국인 학자<sup>4)</sup>의 윤색 및 교열 등의 도움을 받아 번역작업을 수행하였다. 서양인 특히 선교사들의 노력으로 상당한 서구지식이 수입되자 개혁에 뜻을 두었던 중국지식인들은 번역의 중요성과 효용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20세기로 접어들 무렵 서양인이 도달하기 어려운 중국 고문(古文) 실력을 지닌 중국인 번역가가 전면에 나서고 지방 민간 번역기구가 설립되면서 번역은 단시간 내에 눈부신 양적 성장을 이루었다. 중국 번역가들은 서양문화를 알고자 하는 열의는 있었으나 기본적으로 중국문화에 대한

4) 그 대표적 인물로 李善蘭, 王韜, 徐壽, 華衡芳 등이 있다.

우월감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그들은 중국문화의 큰 틀 속에서 서양문화의 장점이라고 생각되는 일부만을 수용하려 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서양인 선교사그룹이 사용한 중국화 번역 전략을 계승한 것처럼 보이나 그 속에 내재한 번역 의도는 전혀 달랐다. 서양인 선교사그룹은 중국에서 기독교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반면 중국 번역가들은 강한 민족주의 정서에 기초해 구국자강과 국민계몽에 목적을 두었던 것이다.

번역방법에 있어서 선교사가 주축이 된 서양인 번역그룹이 중국독자들의 반감을 사지 않기 위해 중국문화에 적응하는 ‘의역’ 중심의 번역책략의 영향으로 인해 청말 번역가들은 축자 번역인 직역보다 전체적인 의미의 전달을 중시하는 의역을 선호하였으며 심지어 원작의 기본 틀에 임의로 자신의 생각을 가미하는 역술(譯述) 방식도 즐겨 사용했다.<sup>5)</sup> 원저의 주제 사상을 그대로 전달하는데 역점을 두기보다 번역의도에 맞추어 원저에 첨삭을 가하고 번역자 자신의 견해를 삽입함으로써 수용문화 속에서의 유의미한 부분을 부각시키려 했던 것이다. 사실 청말시기 외국문학의 번역은 작품 자체에 가치를 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근대 서양을 배우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외국문학은 출발언어문화권에서 갖는 의미와 기능에서 벗어나 청나라 말기의 역사적 필요성에 따라 전유(appropriation) 되는 현상이 뚜렷했다.

청말 번역가 가운데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닌 인물은 량치차오(梁啓超)인데, 그는 정치와 사회를 개량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소설에 주목하여 자신이 주편한 신문잡지에 외국소설의 번역문을 연재했다. 《청의보(淸議報)》는 사바시로(柴四郎)의 《가인기우(佳人奇遇)》<sup>6)</sup>와 야노 류케(矢野龍溪)의 《경국미담(經國美談)》<sup>7)</sup>, 《시무보(時務報)》는 코난 도일의 탐정소설 4종, 《신민총보(新民叢報)》는 쥘 베른의 《15소년표류기(十五小豪傑)》,

5) 직역으로 유명했던 루쉰(魯迅)조차도 청 말에 번역한 《스파르타의 혼(斯巴達之魂)》과 《달나라 여행(月界旅行)》에서는 역술과 의역을 사용했다.

6) 《청의보》 1-35(1898.12~1900.2) 연재.

7) 《청의보》 36-69(1900.2~1901.1) 연재.

《신소설(新小說)》은 기쿠치 유우로우(菊池幽芳)의 《신문팔이(新聞賣子)》를 번역한 《전술기담(電術奇談)》, 쥘 베른의 《해저여행(海底旅行)》, 브와고베의 《독사권(毒蛇圈)》 등을 연재하였다. 이는 청 왕조 말기 10년 동안 정치소설, 탐정소설, 과학환상소설, 모험소설, 언정소설 등 통속류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음을 웅변적으로 보여준다. 이 가운데 량치차오 자신이 직접 번역한 《가인기우》<sup>8)</sup>는 《경국미담》과 함께 청말 정치소설의 유행을 주도했다. 《가인기우》는 조국의 개혁 실패로 미국으로 망명한 스페인 장군의 딸 유란(幽蘭)과 아일랜드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홍련(紅蓮), 명말 유신의 후예 덩판칭(鼎範卿) 세 사람이 조국의 독립을 위한 정치적 이상을 각자 피력하고 있는데, 이들은 유신변법 실패 이후 해외로 망명한 유신파 지식인의 처지를 대변하는 인물이다. 《가인기우》를 연재한 《청의보》는 유신파의 정치적 주장을 담은 잡지로 당시 4000부의 발행량을 자랑하였는데<sup>9)</sup> ‘최근사건(近事)’란에 백일유신의 과정과 정변의 원인을 기록한 ‘무술정변기(戊戌政變記)’, 그리고 ‘문원(文苑)’란에 청 왕조에 대한 비난과 외국 망명으로 인한 유신파 지식인의 비통한 심정을 읊은 시가를 함께 연재했다. 이리하여 정치적 계몽을 목적으로 번역한 정치소설 《가인기우》는 《청의보》의 정치적 논조와 유기적으로 결합함으로써 큰 인기를 누렸다.<sup>10)</sup> 《경국미담》 역시 《청의보》에 연재된 정치소설로 번역자는 저우웨이(周達)이지만 텍스트의 선정과 윤색에 량치차오가 개입했을 것으로 보인다.

량치차오가 ‘모험소설’ 표제를 달아 《신민총보》 제2기부터 연재했던 《15소년 표류기》<sup>11)</sup>는 ‘호걸역(豪傑譯)’의 대표적 사례로 언급되는 번역

8) 량치차오와 뤼푸(羅普)가 합역(合譯)했다고 알려져 있다. 량치차오가 번역할 때 의도적으로 삭제한 부분은 명나라 유신의 후예인 덩판칭(鼎範卿)이 청말에 청왕조를 전복하려고 전국 각지의 지사들과 전선을 구축하는 대목이다. 王志松, 《小說翻譯與文化建構》, 清華大學出版社, 2011, 38쪽.

9) 方漢奇, 《中國近代報刊史》, 山西人民出版社, 1981, 180쪽.

10) 王志松, 앞의 책 35-44쪽.

11) 《신민총보》 2-24(1902.2.22.~1903.1.13) 연재. 원제는 Deux Ans de Vacances

텍스트이다. 량치차오는 상무정신과 모험정신이 투철한 ‘새로운 국민(新民)’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정치적 열망에서 모험소설 번역에 착수했는데, 그가 사용한 번역문체는 문언과 백화 그리고 메이지 20년대에 탄생한 일본의 서구직역체가 혼합된 신문체(新文體)였다. 그는 당시 엔푸(嚴復)의 문언 번역체를 겨냥하여 너무 ‘심오하고 고아하여(淵雅)’ 이해하기 어려운 병폐를 갖고 있다고 지적하면서<sup>12)</sup> 쉬우면서도 정련된 문체미를 갖는 새로운 문체인 ‘신문체(新文體)’를 고안해내었다. 문언과 백화를 병용하면서 일본의 서구번역체를 혼합한 ‘신문체’는 고문에서 근대백화로 옮겨가는 과도기의 번역문체로 저우웨이성(周桂笙), 바오펜샤오(包天笑), 천징한(陳景韓) 등 청말 번역가들에게 적극 받아들여졌다. 번역방식에서는 원작을 크게 변형시켜 번역의도를 선명하게 부각시키는 역술방식을 채택하였다. 량치차오의 번역은 일본 번역가 모리타(森田思軒)가 영역본<sup>13)</sup>에 의거해 일역한 《십오소년(十五少年)》을 저본으로 했는데, 모리타는 자신의 번역은 축자역이 아니라 일본풍으로 바꾼 의역임을 밝혔다. 일역본은 30장으로 이루어진 원작을 15장으로 압축했으며, 장이 끝나는 곳에서 끝맺지 않고 사건 전개的重要한 지점에서 끝맺음으로써 독자의 궁금증을 증폭시키고자 했으며, 심지어는 장의 순서까지 바꾸어 3장 내용을 2장 안에 끼워넣었다. 량치차오는 모리타의 일역본을 다시 중국어로 번역하면서 밝히길 “나의 이 번역은 순전히 중국소설체제로 바꾼 것이지만, 모리타의 역문에 어긋나지 않음을 자신할 수 있다. 과연 이 책을 설령 쥘 베른이 다시 읽는다 하더라도 무례하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sup>14)</sup> 량치차오의 주장대로라면 《15소년

(이년간의 휴가)이다.

12) 량치차오, <원부(原富)>, 《신민총보》 1, 1902, 115쪽.

13) 영어로 번역된 A Two Years` Vacation(Seaside Library Pocket Edition, Munro (New York), 1889)를 사용하여 모리타(森田思軒)가 일본어 번역 《십오소년(十五少年)》을 출판하였다. 사에구사도시카쓰, <쥘 베른(Jules Verne)의 《십오소호걸(十五小豪傑)》의 번역 계보—문화의 수용과 변용—, 《사이間SAI》 4, 2008, 38쪽 참조.

14) “今吾此譯，又純以中國說部體段代之。然自信不負森田。果爾，雖令焦士威爾奴

표류기》는 충실한 번역일 것 같으나 사실은 조금 다르다. 량치차오의 이 글은 번역을 완성한 뒤에 쓴 것이 아니라 제1회만 번역한 뒤 쓴 것으로 《15소년 표류기》에서 사용할 번역책략에 대한 선언이자 그가 도달하고자 하는 이상적인 번역의 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sup>15)</sup> 형식면에서 매회마다 끊어지는 장회백화소설 체제를 차용했는데 이는 신문잡지 연재에 매우 적합한 형식이라고 생각했기에 의도적으로 차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장회백화소설 체제에 맞추어 7인 대구의 회목(回目)을 달았고, 매회의 끝맺음에 4언7언 대구를 첨가하여 독자의 궁금증을 유발하는 방식을 차용했으며, ‘독자여러분(看官)’ 등의 관용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원작에서는 숨어 있던 서술자를 전면으로 드러내고 있다.<sup>16)</sup> 사실, 도치적 서사구조로 된 《15소년 표류기》를 장회백화소설체제로 번역하는 것은 새로운 창조이자 모험이었다. 왜냐하면 중국의 장회백화소설은 모두 순차적 서술 방식이었기 때문에 장회백화소설체제 안에 도치서사를 사용하면 독자들이 너무나 생소하여 당혹해하거나 혹은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었다. 그래서 서술자를 전면으로 내세워 독자에게 직접 설명하거나, 혹은 매회의 말미에 별도로 부기를 달아 상세히 설명해주는 방식으로 번역했다. 비유컨대 량치차오는 구형식에 새로운 사상내용을 담는 방식을 취하여 문학규범 방면에서는 중국측 규범을 존중하였고, 주제사상 면에서는 서양의 근대적 정신을 이식하고자 했다.

량치차오가 1898년 《가인기우》의 서문으로 쓴 ‘역인정치소설서(譯印政治小說序)’를 《청의보》에 연재하면서 중국에 없던 새로운 장르인 정치소설을 크게 유행시킨 이후로 1903년부터 번역소설이 점차 증가하여 1907년에 이르러서는 정점을 찍었다. 1907년 우후죽순처럼 창간된 문예잡지가 번역소설을 연재하는 붐을 일으켜 번역소설이 크게 유행했는데, 예컨대 상하이의 《소설림(小說林)》, 《월월소설(月月小說)》, 《경립사소설월보(競

複讀之，當不謂其唐突西子耶。”《十五小豪傑》第1回附記。

15)王志松, 앞의 책, 47쪽.

16) 같은 책, 48쪽.

立社小說月報》, 《중외소설림(中外小說林)》, 광둥(廣東)의 《신소설총(新小說叢)》, 《광둥금연신소설(廣東禁煙新小說)》, 홍콩의 《소설세계(小說世界)》 등이 번역소설을 실었고, 특히 《소설림》과 《신소설총》은 번역소설이 지면의 상당부분을 차지하였다.<sup>17)</sup> 민주정치제도, 과학지식, 탐험정신, 논리적 추론, 아동인권 등 서양의 우수성을 받아들이기 위해 서구의 정치소설, 과학환상소설, 탐정소설, 교육소설<sup>18)</sup> 등을 우선적으로 번역하였다.

먼저, 과학환상소설은 과학지식을 보급함으로서 미신을 타파하여 새로운 문명을 건설하는데 유용한 수단이자 오락성을 갖춘 읽을거리로 환영받았는데 가장 많이 번역된 작품은 쥘 베른의 소설로 최초의 중역본(中譯本)은 1900년에 천서우평(陳壽彭)의 구역(口譯)과 그의 아내인 여류시인 쉘샤오웨이(薛紹微)의 필술에 의해 영역본을 번역한 《80일간의 세계일주(八十日環球記)》이다. 이 작품은 선박과 기차 등 과학발명품, 세계일주노선, 서양 역법 등에 관한 지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주인공이 세계일주기행에서 경험하는 세계 각국의 문화를 문학적 상상력을 동원하여 빠른 전개방식으로 서술함으로서 재미를 더하고 있다.

다음으로, 탐정소설은 청말 10년 동안 번역된 외국소설 중 절반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많이 번역된 장르였다.<sup>19)</sup> 특히 코난 도일의 작품이 가장 많이 번역되었는데, 52편의 작품이 번역되었고 98종의 판본이 출간되었다.<sup>20)</sup> 탐정소설을 최초로 연재한 《시무보》의 경우, 1896년 8월에 발행한 제1권의 ‘해외신문번역(域外報譯)’란에 《英國包探訪喀迭醫生奇案》 1을 연재한 것을 시작으로 제6권부터는 ‘영문신문번역(英文報譯)’란에 코

17) 郭延禮, 《中國近代翻譯文學概論》, 湖北教育出版社, 1998, 45쪽.

18) 교육부의 표창을 받은 包天笑의 3부 교육소설 《苦兒流浪記》, 《馨兒就學記》, 《埋石棄石記》이 있다.

19) 아잉(阿英)의 기술에 의하면, 만일 당시의 번역소설이 1000종이었다면 그 중 정탐소설이 500종 이상을 차지했을 정도였다고 한다. 阿英, 《晚清小說史》, 人民文學出版社, 1980, 186쪽.

20) 郝嵐, <通俗與經典的錯位——中國近代讀者視域中的柯南·道爾、哈葛德、凡爾納與大仲馬>, 《清末小說》 31, 2008, 45쪽.

난 도일의 탐정소설 4편을 연재했는데 《英包探勘盜密約案》<sup>21)</sup>, 《記區者復讐事》<sup>22)</sup>, 《繼父誑女破案》<sup>23)</sup>, 《呵爾唔斯緝案被戕》<sup>24)</sup> 등이 그것이다. 《시무보》에 연재되었던 코난 도일의 탐정소설은 이후 1899년 색은서국(索隱書局)에서 《新譯包探案》 제목의 단행본으로 출판되었는데, 이 책은 린수(林紓)와 왕서우창(王壽昌)이 합역(合譯)한 《춘희(巴黎茶花女遺事)》를 함께 수록하고 있다. 그리고 이후 1906년 설부총서 초집(初集) 제 4권에 《華生包探案》 제목으로 또다시 출간되었다.<sup>25)</sup> 번역자는 《시무보》의 영문편집자였던 장쿤더(張坤德)로 4편 모두 문언으로 번역하였다. 설록 홈즈는 이성과 과학에 기초한 믿음을 중시한 19세기 영국 빅토리아 시대의 실증정신이 만들어낸 인물로, 그의 논리적 추론과정과 사건해결을 위해 동원되는 서양의학과 과학지식 특히 해부학, 약리학, 생리학, 화학, 지질학 등은 중국 독자를 사로잡기에 충분히 매력적이었다. 《시무보》를 통해 중국에 처음 소개된 탐정소설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02년 《續譯華生包探案》, 1903년 《補譯華生包探案》, 1904년 시뤄(奚若)와 황런(黃人)이 합역한 《大復讐》<sup>26)</sup>, 《案中案》<sup>27)</sup>, 천옌(陳彥)이 번역한 《恩讐血》<sup>28)</sup> 등이 속속 번역되었다. 1906년은 설록 홈즈 번역의 해라고 부를 정도였는데, 린수와 웨이이(魏易)가 합역한 《蛇女士傳》<sup>29)</sup>, 馬汝賢이 번역한 《黃金骨》, 번역자를 알 수 없는 《福爾摩斯偵探案一案》<sup>30)</sup>이 출판되었고, 소설림사는 1904년에서 1906년까지 시뤄(奚若)가 번역한 《福爾摩斯再生

21) 《시무보》 6-9(1896.9.27.~10.7) 연재, 원제는 The Naval Treaty(1893년작)

22) 《시무보》 10-12(1896.11.5.~25) 연재, 원제는 The Crooked Man(1893년작)

23) 《시무보》 24-26(1897.4.22.~5.10) 연재, 원제는 A Case of Identity(1981년작)

24) 《시무보》 27-30(1897.5.20.~6.20) 연재, 원제는 The Final Problem(1893년작)

25) 郭延禮, <近代翻譯偵探小說述略>, 《外國文學研究》 1996:3.

26) 코난 도일의 A Study In Scarlet.

27) 코난 도일의 The Sign of Four.

28) 코난 도일의 A Study In Scarlet.

29) 코난 도일의 Beyond the City.

30) 원제는 A Study in Scarlet.

案》<sup>31)</sup>을 출간했다.<sup>32)</sup> 1908년에는 린수와 웨이이가 번역한 코난 도일의 《歇洛克奇案開場》<sup>33)</sup>이 출판되어 셜록 홈즈 열기를 이어갔다.<sup>34)</sup> 민국시기로 접어들면서 셜록 홈즈 번역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전집을 발행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 1916년 5월 류반농(劉半農), 청샤오칭(程小青), 옌두허(嚴獨鶴) 등 10명의 번역가가 문언으로 번역한 《셜록 홈즈 탐정전집》 12권을 중화서국에서 간행되었다. 이 전집은 44개의 고사를 수록하고 있으며 1920년대에 무려 20쇄 넘게 인쇄되었을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 이 외에도 1925년 대동서국(大東書局)에서 《셜록 홈즈 전집(新偵探全集)》 4권을 저우서우주안(周瘦鵑), 장서위(張舍我), 장취핀(張蕪蘋) 3명이 백화로 번역 출판했으며, 1927년에는 청샤오칭이 백화로 번역한 《탐정대전집(探偵大全集)》이 세계서국(世界書局)에서 출판되었다.<sup>35)</sup> 코난 도일 탐정소설이 크게 성공하자 미국의 앨런 포우(Edgar Allan Poe)의 작품도 번역되기에 이르렀는데, 1905년 저우쭈어런(周作人)이 《풍뎅이(The Gold-Bug)》를 《비단벌레 인연(玉蟲緣)》 제목으로 《여자세계(女子世界)》 5월호에 연재한 것을 시작으로 《모르그가의 살인사건(莫格街血案)》<sup>36)</sup>, 《마리 로제 수수께끼(瑪麗羅熱疑案)》<sup>37)</sup>, 《도둑맞은 편지(竊信案)》<sup>38)</sup> 등이 잇따라 번역되었다.

청 왕조 말기 번역계에는 원저를 직접 번역하기보다 일역본 혹은 영역본에 의존해 번역하는 중역(重譯) 현상이 만연했다. 량치차오는 <논역서

31) 원제는 The Return of Sherlock Holmes.

32) 鄒振環, 《影響中國近代社會的一百種譯作》, 中國對外翻譯出版公司, 1996, 248쪽.

33) 원제는 A Study in Scarlet.

34) 린수는 탐정소설을 번역해야 하는 이유로 중국의 낙후한 법률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35) 範煙橋, <民國舊派小說史略>, 魏紹昌 等編, 《鴛鴦蝴蝶派研究資料》上, 上海文藝出版社, 1984.

36) 원제는 The Murders in the Rue Morgue.

37) 원제는 The Mystery of Marie Roget.

38) 원제는 The Purloined Letter.

(論譯書)><sup>39)</sup>에서 서구문명을 받아들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번역인데, 동일한 한자를 사용하는 일역본을 중역함으로서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메이지 10년대 번역소설이 대부분 한문직역체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더욱 가능했다. 일례로 량치차오가 《가인기우》를 수월하게 번역할 수 있었던 것은 한문직역체로 된 일역본의 존재 덕분이었다. 일역본이 가진 문자상의 편의성 때문에 청왕조 말기의 유명한 번역가 천징한(陳景韓), 쉬넨쯔(徐念慈), 우타오(吳濤), 바오텐샤오(包天笑) 등은 영국소설, 프랑스소설, 러시아소설 등을 번역할 때 대부분 일역본을 저본으로 했다. 특히 프랑스로부터의 쥘 베른 작품의 경우에는 프랑스어 원저→영역본→일역본→중역본의 네 단계를 거침으로서 원저에서 크게 멀어졌다.<sup>40)</sup> 이처럼 일역본은 중국이 서양문학을 수용하는 스펙트럼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서양문학에 대한 일본 번역계와 평론계의 시각은 중국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다. 량치차오가 정치소설 번역을 역설했던 것은 일본에서 1880년에서 90년대까지 영국인 디즈레일리(Benjamin Disraeli)와 불워-리튼 경(Lord Bulwer-Lytton)의 정치소설이 유행했던 일본문학계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 III. 상무인서관편역소(商務印書館編譯所) 번역그룹

베이징대 천평위안(陳平原)의 통계에 따르면 1896년에서 1916년 동안 번역된 외국문학은 모두 796종이며 그 중 영국소설이 293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프랑스소설, 일본소설, 미국소설, 러시아소설, 독일소설 순이다.<sup>41)</sup> 청말민초 시기에 외국문학의 번역 열기가 고조될 수 있었던 데에는

39) <論譯書>, 《時務報》 27(1897.5.22) 연재, 《梁啟超全集》 1, 北京出版社, 1999, 44-50쪽.

40) 쥘 베른의 소설이 여기에 속한다.

41) 陳平原, 《二十世紀中國小說史》 1, 北京大學出版社, 1997, 629-630쪽.

국민계몽이라는 역사적 필요성과 함께 상하이에서 급성장한 근대적 번역 출판사업의 물적 토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당시 번역문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출판사는 상하이의 상무인서관(商務印書館)으로 통계에 따르면, 1901년에서 1916년 동안 번역소설을 출판한 8개 출판사 가운데 상무인서관이 241종의 번역소설을 출판하여 최고를 차지했다. 이는 90종을 출판하여 2위에 오른 소설림사(小說林社)와도 상당한 차이를 보일만큼 독보적이었음을 입증하는 수치이다.<sup>42)</sup> 상무인서관은 대형 번역문학총서 시리즈 ‘설부총서(說部叢書)’를 기획하여 1903년부터 20년에 걸쳐 모두 322종의 외국문학을 번역 출판했으며, 이와 함께 베스트셀러로 애독되었던 린수의 번역소설 100종을 단독으로 떼어서 ‘임역소설총서(林譯小說叢書)’ 시리즈로 출간하여 경제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 상무인서관에서 외국문학 번역출판을 담당했던 부서였던 편역소(編譯所)는 유명한 번역가 린수(林紓), 우타오(吳禱), 천차린(陳家麟), 웨이이(魏易), 우광젠(伍光建), 바오펜샤오(包天笑), 저우소우웬(周瘦鵑) 등 160여명이나 되는 번역자와 편집자를 확보했던 대형 번역그룹이었다. 청말민초시기 번역가의 전체 수가 250여명이었던 것을 감안했을 때<sup>43)</sup> 상무인서관이 확보한 번역가의 수는 가히 상당했음을 알 수 있다.

#### 1. 근대 최초의 번역문학시리즈 ‘설부총서(說部叢書)’

근대 최초의 번역문학총서인 ‘설부총서(說部叢書)’는 1903년에서 1924년까지 근 20여년에 걸쳐 1종과 2종으로 나뉘어 순차적으로 출간되었다. 제1종은 1903년부터 1907년까지 5년에 걸쳐 총 100종의 외국문학을 출판했으며, 제2종은 상무인서관이 1908년 조직을 재정비한 이후에 기획한 것으로 1집(集)에서 4집(集)까지 총 322종의 작품을 출간하였다. 1914년에

42) 같은 책 41쪽.

43) 永田小絵, <中國翻譯史における小説翻訳と近代翻訳者の誕生—後編>, 《翻訳研究への招待》 2, 2008, 1쪽; 郭延禮, 앞의 책, 15쪽.

출간한 제2종 1집은 앞서 간행되었던 제1종 100종을 재판한 것이고, 2집부터 새로운 번역서를 출간하여 1914~15년 사이에 100종, 1916~20년 사이에 3집 100종, 1921~24년 사이 4집 22종을 출간하였다. 제2종이 제1종과 비교했을 때 갖는 가장 큰 특징은, 1집의 1편 《가인기우》와 2편 《경국미담》이 각각 《천제낙화(天際落花)》<sup>44)</sup>와 《극장기안(劇場奇案)》<sup>45)</sup>으로 대체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아마도 정치소설이 지나친 설리성 때문에 소설적 재미가 없어 잠시 유행하다가 곧 독자의 외면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 제1종에서는 소설을 유형에 따라 언정(言情)소설, 역사소설, 사회소설, 정치소설, 군사소설, 국민소설, 모험소설, 의협소설, 탐정소설, 과학소설, 애정(哀情)소설, 여지(勵志)소설, 이상(理想)소설, 윤리소설, 신괴(神怪)소설, 철리(哲理)소설, 법률소설, 외교소설, 차기(割記)소설, 전기(傳奇)소설 등으로 분류한 표제를 앞표지에 제목과 함께 병기했는데 이러한 분류방법은 1902년 양계초가 창간했던 소설잡지 《신소설》에서 비롯된 것으로, 상무인서관은 확실한 광고효과를 위해 이런 표제를 사용했으며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판매부수를 늘리려는데 궁극적 목적이 있었다. 그런데 후기로 갈수록 분류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식한 듯, 3집부터 표제가 없어졌고 대신 소설의 주제 혹은 주요장면을 담은 컬러판 화보가 앞표지를 대체했다. 1집에서 4집까지 모두 원서명과 원저자를 밝히고 있지 않은데 이를 통해 청말민초 시기에 번역의 권위가 원저를 통해 확보된 것이 아니라 번역자와 번역문을 통해 확보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설부총서’는 2,3류 작품이 대중을 이루고 있는데 가령 영국의 헤거드, 디킨스, 프랑스의 알렉상드르 뒤마 부자(父子), 노르웨이의 입센 등의 작품이 다수이다. 설부총서에도 중역(重譯)의 사례가 빈번했으며 주로 일역본 혹은 영역본에 의지하였다. 특히 러시아문학의 경우에는 일역본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했는데 여기에는 일본에 유학했던 번역가들이 주로 참여했다.

44) 원저는 브와고베(Fortuné du Boisgobey)의 La Voilette bleue이며, 일본 구로이와 루이코(黒岩淚香)가 번역한 일역본에 근거하여 번역하였다.

45) 영국 福爾奇斯休姆의 탐정소설.

게다가 청말민초시기에 동일한 원서를 중복 번역하던 현상도 ‘설부총서’에 반영되어 있다. 동일한 작품을 다른 번역자가 번역한 작품은 2종이 있는데, 하나는 해거드의 Dawn을 린수와 웨이이(魏易)가 합역한 《橡湖仙影》(第1集58編)와 웨이어(薛一謬)와 천자린(陳家麟)이 합역한 《血泊鴛鴦》(第2集52編), 다른 하나는 해거드와 랑(Andrew Lang)의 공저 The World's Desire를 루쉰 형제가 번역한 《紅星佚史》(第1集78編)와 린수와 천자린이 합역한 《金梭神女再生緣》(第3集86編)이다.

## 2. 베스트셀러로 성공한 ‘임역소설총서(林譯小說叢書)’

린수(林紓)는 근대중국에서 가장 많은 문학작품을 번역했던 번역가로, 1899년 《춘희(巴黎茶花女遺事)》를 번역한 것을 시작으로 1924년까지 25년 동안 약 163종의 외국문학을 번역했다. 상무인서관은 ‘설부총서’ 시리즈로 출간하던 린수의 번역문학이 독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자 그의 역작(譯作)만 단독으로 뽑아내어 1914년부터 ‘임역소설총서(林譯小說叢書)’를 출판하였다. ‘임역소설총서’는 전후 2집(集) 각각 50종(種)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100종의 번역소설 중 영국소설이 69종으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은 프랑스소설 11종, 미국소설 5종, 러시아소설 4종, 일본소설 1종, 벨기에소설 1종, 국적불명이 9종이다.<sup>46)</sup> 작가별로 보자면 해거드의 작품이 20종으로 가장 많으며, 코난 도일 7종, 디킨스 5종, 톨스토이 4종, 알렉산더 뒤마와 뒤마 필 3종, 어빙(Washington Irving) 3종, 스코트 2종 등을 번역하였다.

당송산문에 해박하고 고문(古文) 대가였던 린수는 고문으로 서양의 장편소설을 훌륭하게 번역해냄으로서 새로운 번역문체를 개척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후스(胡適)는 고문은 본래 골계의 풍미가 없고 사랑

46) 樽本照雄, 《清末民初小說書目》, 齊魯書社, 2002; 賈植芳, 《中國現代文學總書目·翻譯文學卷》, 知識產權出版社, 2010.

을 묘사할 때 거의 사용하지 않는 문체였는데 린수는 고문의 한계를 극복 했으니 사마천 이래 고문을 가장 잘 구사한 문장가라고 칭송할 만 하다고 하였다.<sup>47)</sup> 고문을 사용한 린수의 번역문체는 루쉰도 칭송할 정도였으며<sup>48)</sup>, 작가 쩌쥔수(錢鍾書) 역시 린수의 번역문을 읽을지언정 헤거드의 원문을 읽고 싶지 않을 정도로 린수의 중문번역이 훌륭하였다고 극찬했다.<sup>49)</sup> 이처럼 20세기 초기 중국독자들에게 린수의 번역소설이 유려하고도 아름다운 풍격을 지닌 문체로 인해 애독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통해 청말민초시기에는 문언이 번역문체로서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임역소설의 성공은 번역 자체의 우수성과 함께 상무인서관의 대대적인 홍보로 인해 가능했다. 린수와 상무인서관은 1902년부터 본격적인 합작관계를 맺어 번역서를 출간했으며 그의 번역소설은 상무인서관에서 창간한 문학잡지에도 연재되었다. 그리고 상무에서 창간한 문학잡지의 광고란에는 임역소설을 홍보하는 문구가 크게 실렸는데 가령, 1907년 《동방잡지(東方雜誌)》 제4권제5기 소설란 첫 페이지에 ‘閩縣林琴男先生譯本’ 타이틀 아래 46종의 번역소설 제목이 나열되었다. 1910년에 창간된 《소설월보(小說月報)》는 창간 초기부터 임서의 번역소설을 중점적으로 연재했는데 이는 1911년 상무인서관편역소에 번역위원으로 부임해 와서 이듬해 1912년 《소설월보》 주편을 맡았던 윈테차오(惲鐵樵)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상당한 문학 감상능력을 겸비하여 영국소설 번역가로도 활약했던 그는 린수의 문필을 높이 샀다.<sup>50)</sup> 《소설월보》는 창간이후 1921년

47) “古文不曾做過長篇的小說，林紓居然用古文譯了一百多種長篇小說，還使許多學他的人也用古文譯了許多長篇小說。古文裏很少滑稽的風味，林紓居然用古文譯了歐文與迭更司的作品。古文不長於寫情，林紓居然用古文譯了《茶花女》與《迦茵小傳》等書。古文的應用，自司馬遷以來，從沒有這種大的成績。” 胡適，〈五十年來中國之文學〉，《胡適文集》3，北京大學出版社，1998，215쪽.

48) “當時中國流行林琴南用古文翻譯的外國小說，文章確實很好” <致增田涉>，《魯迅全集》13，人民文學出版社，1981，473쪽.

49) 錢鍾書，〈林紓的翻譯〉，《翻譯論集》，商務印書館，2009，719-720쪽.

마오뎬(茅盾)이 개혁에 착수하기 전까지 50여종에 달하는 임역소설을 연재했다. 뿐만 아니라 임역소설에 관한 선전 문구를 눈에 띄는 자리에 배치함으로써 광고효과를 높였다. 예를 들면, 제4권제1기에 목차 바로 다음 쪽에 ‘林琴南譯言情小說 迦茵小傳, 紅礁畫獎錄, 洪罕女郎傳, 玉雪留痕’, 제4권제8기에는 ‘林琴南先生譯最有趣味之小說’이라는 제목을 첨가하였으며, 제10권제7기에도 유사한 광고가 실렸다.<sup>51)</sup> 출판사의 적극적인 광고는 1913년 이후로 번역수준이 떨어진<sup>52)</sup> 임역소설이 인기몰이를 계속 이어가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상하이 굴지의 출판사인 상무인서관의 홍보와 명성에 의지하여 임역소설은 신속하게 독자들의 시야로 들어가 베스트셀러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주목할 사실은 그로부터 60여년이 지난 1981년 상무인서관은 린수의 번역소설 가운데 10종<sup>53)</sup>을 선별하여 재판함으로써 린수의 번역소설이 가진 매력과 연구 가치를 새로이 환기시킨 바 있다.

그밖에 린수의 번역소설이 성공할 수 있었던 데에는 그가 가진 인적 네트워크도 중요한 작용을 했다. 복건출신 임오년(壬午年, 1882년) 거인(舉人) 동기생 네트워킹은 빈한했던 그에게 새로운 미래의 사업을 위한 인적 토대를 만들어준 중요한 원천이었다. 린수는 1882년 거인에 합격한 이후로 1898년까지 모두 6차례 예부 회시에 응시했으나 낙방하자 결국 과거에

50) 樹珏(惲鐵樵), <關於小說文體的通信>, 《小說月報》7:3(1916.3); 陳平原, 夏曉虹, 《二十世紀中國小說理論資料》1, 北京大學出版社, 1997, 563-566쪽.

51) 郝嵐, <“林譯小說”與意識形態、出版機構的關係>, 《天津師範大學學報(社會科學版)》186, 2006, 61쪽.

52) 錢鍾書에 따르면 1913년 프랑스작가 베르나르댕 드 생 피에르(Bernardin de Saint-Pierre)의 《폴과 비르지니(Paul et Virginie)》을 번역한 《離恨天》출간 이후로 린수의 번역 문필이 떨어졌다고 한다. 錢鍾書, 앞의 글 참조.

53) 《離恨天(원제: Paul et Virginie)》, 《吟邊燕語(Tales from Shakespeare)》, 《撒克遜劫後英雄略(Ivanhoe)》, 《拊掌錄(The Sketch Book)》, 《黑奴籲天錄(Uncle Tom's Cabin)》, 《塊肉餘生述(The Personal History David Copperfield)》, 《巴黎茶花女遺事(La Traviata)》, 《現身說法(Childhood, Boyhood and Youth)》, 《迦茵小傳(Joan Haste)》, 《不如歸(Tokutomi Roka)》 등 10종이다.

대한 꿈을 접고 이후로 문학번역과 신식교과서 편찬 작업에 매진했다. 당시 상무인서관편역소 소장이었던 가오명단(高夢旦)은 린수의 거인 동기생 가오핑치(高鳳岐)의 동생이었다. 가오핑치는 1902년, 가오명단은 1903년 상무인서관편역소에 들어와 중직을 맡게 되었고 이후로 고씨 형제를 통해 상당수의 복건출신 번역가와 편집자가 상무인서관에 들어오게 되었다. 고씨 형제와 친분이 깊었던 린수는 그들의 도움으로 상무인서관에서 번역소설을 간행할 수 있었다. 사실 상무인서관은 1897년 작은 인쇄소로 출발하였는데 이듬해 상무의 창립자 샤웨이팡(夏瑞芳)이 영어 학습 열기가 고조되는 분위기에 편승하여 영어학습서 《華英初階》와 영어교과서 《華英進階》를 간행하여 큰 성공을 거둬으로써 출판사업에 뛰어들게 되었고 1903년에는 유한(有限)회사로 전환할 만큼 성장하였다. 이후 장위안지(張元濟)가 편역소 소장으로 부임해오면서 신식교과서, 외국명저 번역, 잡지 발간, 사전편역 사업 등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거두어 상무인서관은 20세기 전반기 상하이 출판계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부상하였다. 한창 번성기엔 각 분야의 전문가 300여명이 운집하였으니, 상무인서관은 상하이를 대표하는 출판사로서 뿐만 아니라 상하이 지식인이 집결하는 문화공작소였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린수의 번역소설은 뛰어난 문필과 함께 문화기획 권력에 의지함으로써 번역의 권위를 확보할 수 있었다.

임역소설총서는 중국번역사에서 상견되는 번역작업방식인 ‘2인 공동번역’을 통해 탄생한 텍스트로 유명하다. 린수는 외국어를 몰랐기 때문에 구술(口述)자의 구술을 듣고 필술하는 방식으로 번역했다. 따라서 임역소설총서의 번역과정에서 차지하는 구술자의 비중을 간과할 수 없다. 하지만 연구자료의 부족과 연구의 어려움으로 인해 번역과정에서 구술자의 개입 정도와 그것이 번역텍스트에 미치는 작용에 대해 아직까지 명확한 인식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다행히 최근 중화권에서 발표된 연구논문에서 약간의 단초를 찾을 수 있는데, 린수의 번역소설은 구술자가 누구냐에 따라 문화적 차이를 약화시키는 자국화 경향을 띠거나 혹은 문화적 차이를 그대로 드러내는 이국화 경향을 띤다고 한다.<sup>54)</sup> 일례로 웨이이(魏易)와 함역한

《영클 톰즈 캐빈(黑奴籲天錄)》은 자국화 번역(domesticating translation)이었음에<sup>55)</sup> 반해 정종공(曾宗鞏)과 합역한 《걸리버여행기(海外軒渠錄)》는 이국화 번역(foreignizing translation)이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의역의 대명사로 알려진 린수에 대한 평가는 각 구술자별로 번역텍스트를 대조 검토하여 번역책략을 개별적으로 접근해야 보다 타당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IV. 1928년 이후 좌익문예계 번역그룹

##### 1. 좌익문학 번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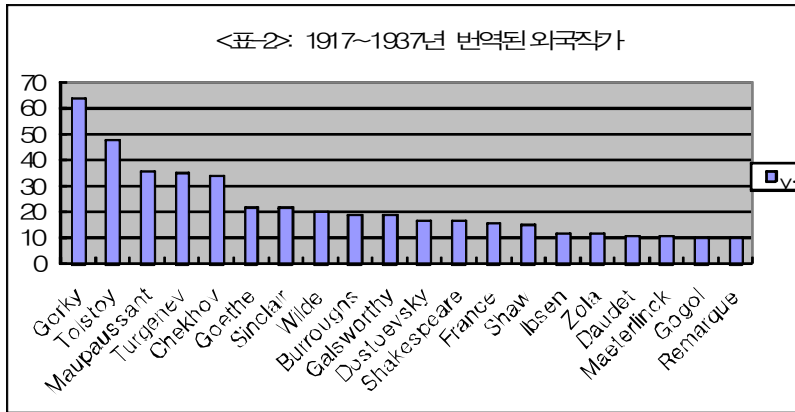
러시아문학은 1917년 10월 혁명이 성공한 이후에야 비로소 중국에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그 이전까지 러시아문학은 영국문학과 프랑스문학에 밀려 독자들에게 거의 주목받지 못했으며, 설령 번역되었다 하더라도 겨우 톨스토이 작품에 국한되었다. 그런데 1920년대 이후 서구자본주의의 경제공황을 목도한 중국지식인들은 중국을 구할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을 러시아의 프롤레타리아 계급혁명 경험에서 찾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성공적인 삶을 훌륭하게 그려낸 작품과 마르크스 문예이론의 번역이 급증하였고, 여기에는 1930년 성립된 좌익작가연맹 소속 작가들의 공헌이 지대했다. 러시아문학은 사회주의 혁명의 깃발 아래 문학의 주인공이 개인에서 대중전체로 옮겨갔으며, 문학은 예술의 독립성에서 벗어나 정치를 위한 선전으로 간주되었다. 아래 <표 2><sup>56)</sup>에서 확인되듯이, 1917년에서 1937년간 가장 많이 번역된 작가 중 러시아 작가가 상위권을 차지했

54) 張佩瑤, <西方主義的話語?—《黑奴籲天錄》個案研究>, 《中外文學》32:3, 2003, 141-166쪽.

55) 김소정, <번역과 굴절: 『영클톰즈캐빈(Uncle Tom's Cabin)』의 중국적 재구성>, 《중어중문학》 46, 2010, 129-152쪽.

56) Leo Tak-hung Chan, 앞의 글 223쪽.

는데 1위가 고리키, 2위 톨스토이, 4위 푸르케네프, 5위 체호프 등의 순서이다. 1위를 차지한 고리키는 프롤레타리아 계급 출신으로 정치와 문학의 관계를 성공적으로 설정하여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위한 문학작품을 훌륭하게 창작했다. 1932년 소련에서 고리키의 문학창작 40주년 기념행사가 성대하게 거행되면서 그를 추앙하는 분위기가 고조함에 따라 중국에서 대량 번역되기 시작하였다.



1930년 상하이에서 성립된 중국좌익작가연맹은 1936년 해체할 때까지 좌익문학운동을 전개하여 소련문학의 번역에 열중했다. 1920년대 말 좌익 문학 및 좌익문예이론 번역에 종사했던 번역가들은 모든 문학은 선전이라는 인식아래 문학의 기교와 예술상의 성숙도는 그다지 중시하지 않았다. 그들이 번역해낸 새로운 단어는 음역한 것이 많았기 때문에 불명확하여 의미전달에 큰 어려움이 있어서 단어에 대한 긴 해설을 별도로 첨가하였다. 청말 번역가들이 한자 중에서 근접한 것을 활용한 의역법과 상당히 대조적인 30년대 좌익문학 번역가들의 음역법은 원전에 대한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좌익문학 번역가들은 소련문학 및 문예이론을 한때의 유행서적이 아니라 경전저작으로 숭상하는 태도를 취했었다. 루쉰이 주편한 중국최

초의 번역문학 전문잡지 《역문(譯文)》은 1934년 9월에 창간하여 1937년 6월까지 총 28기를 출간했는데, 독자 대상은 일반 대중이 아니라 혁명문예의 창작과 비평에 뜻을 둔 작가로 설정하여 특히 소련의 혁명문예이론과 비평을 번역하는데 역점을 두어 약 100여 종의 작품을 번역했다.<sup>57)</sup>

그런데 우수한 러시아어 능력을 갖춘 번역가가 부족했기 때문에 러시아문학의 번역은 오히려 영역본 혹은 독역본에 근거하는 경우가 많았다. 당시 중국번역계의 가장 훌륭한 성과라 칭송되었던 푸르게네프의 6대 명저<sup>58)</sup>는 빠진(巴金), 리니(麗尼), 루리(陸蠡) 등이 영역본을 저본으로 하여 번역한 것이었다. 고골리의 《죽은 혼령(死魂靈)》 역시 루쉰이 독일어번역본에 근거하여 번역했다. 이러한 현상을 초래한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번역의 가장 기본 공구서인 《러중사전》이 없었다는 것이다. 당시 대부분의 번역자들은 일본의 러시아어학의 선구자였던 八杉貞利(1876~1966)가 편찬한 《노화사전(露和辭典)》 혹은 《아어사전(俄語字典)》을 참고로 했다고 한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러시아 원작을 직접 번역한 번역텍스트는 원작에 비견되는 정련된 문장을 구사하지 못하였다. 즉 우수한 원작의 명성을 해치는 번역텍스트가 탄생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문학에 담긴 세계적 문호의 위대한 사상과 휴머니즘적 세계관, 하층노동인민에 대한 동정과 인류운명에 대한 성찰 등은 중국의 신문학에 훌륭한 모델을 제공하였다. 극작가 샤옴(夏衍)의 지적처럼, 중국에 가장 유행한 외국어는 영어, 불어, 독어였지만 가장 많이 번역되고 중국 문예와 사상 방면에 가장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오히려 러시아 문예작품이었다.<sup>59)</sup>

57) 王曉丹, 《翻譯史話》,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0, 143쪽.

58) 장편소설 《루딘(羅亭)》, 《귀족의 보금자리(貴族之家)》, 《전야(前夜)》, 《아버지와 아들(父與子)》, 《연기(煙)》, 《처녀지(處女地)》 등이다.

59) 夏衍, <乳母與教師—關於俄羅斯文學>, 《時代文學》 1:4, 1941.

## 2. 번역논쟁

1920년대 말에서 1930년대 초 프롤레타리아계급 문학의 번역을 중시한 좌익진영의 세력이 확장하면서 마르크스문예이론과 소련문학의 번역이 활발해지자 번역계 내부에서는 이데올로기 논쟁이 벌어졌다. 번역을 둘러싼 좌, 우익작가들의 첨예한 논쟁을 통해 새로운 번역기준과 방법이 수립되어 갔다. 사실, 번역기준에 있어 옌푸(嚴復)가 주장했던 충실성(信), 가독성(達), 유려함(雅)의 기준이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는데, 민국(民國)초기까지 가독성이 충실성보다 우선시 되었다. 그러나 1928년 이후로 좌익문예이론이 소개되면서 충실한 번역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어갔다. ‘딱딱한 번역(硬譯)’과 ‘중복번역(複譯)’을 둘러싼 논쟁은 당시 마르크스 문예이론과 러시아문학을 번역한 창조사 동인들이 일역본 혹은 영역본을 저본으로 하여 번역한데 문제점을 자유주의 진영의 문인들이 통렬히 비난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시기 번역논쟁의 중심에는 자유주의 진영을 대표하는 량스츄(梁實秋)와 좌익계열의 대표격인 루쉰(魯迅)이 있었는데 이들은 충실성(信)과 가독성(達)의 우선순위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량스츄는 루쉰의 번역을 겨냥해 충실성에만 입각하여 이해할 수 없는 문장으로 번역한 것은 독자의 시간과 정력을 낭비시키는 것일 뿐이라며 이를 ‘죽은 번역(死譯)’이라며 맹비난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량스츄가 지나친 의역 즉 순조롭지만 충실하지 않아(‘順而不信’) 원문이 지닌 풍격(語氣)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번역을 주장한 것은 아니었다.<sup>60)</sup> 즉 순조롭지만 충실하지 않은 번역을 주장한 것은 아니었다. 사실 루쉰이나 량스츄 모두 왜곡되지 않으면서도 딱딱하지 않은 번역을 이상적인 번역으로 생각했으나, 이상적인 번역에 도달하지 못하는 당시의 현실적 상황에서 임시방편으로 취한 것이 루쉰은 ‘딱딱한 번역(硬譯)’이었고 량스츄는 의미가 잘 통하는(通順) 번역이었던 것이다.

60) 梁實秋, <論魯迅先生的硬譯>, 《新月》 2:6-7, 1929.9~10.

1930년을 전후하여 번역논쟁이 일어났을 때에는 종래의 문언 번역에서 탈피하여 근대 백화문으로 세계문학명저와 문예이론서적을 번역하는 과도기적 실험 단계였다. 이상적인 번역에 대한 입장은 기본적으로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번역논쟁으로 발전하게 된 원인은 번역을 둘러싸고 정치적 이데올로기 투쟁이 일어났기 때문이다.<sup>61)</sup> 번역이 정치논쟁에 연루된 계기는 량스츄가 <이른바 문예정책이라 함은(所謂文藝政策)> 글을 통해 루쉰이 러시아공산당중앙위원회 결의에서 통과된 문예정책을 번역한 동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비롯되었다. 러시아공산당의 문예정책을 따르는 중국 좌익작가들의 사상성을 지적하면서 량스츄는 루쉰이 마르크스주의 작품을 ‘딱딱한 번역’ 방식으로 대량 번역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루쉰은 1928년 혁명문학 논쟁을 계기로 마르크스주의 작품을 다독하게 되면서 자칭 혁명문학과였던 좌익작가 및 이론가들이 드러낸 약점을 간파하고 마르크스주의 문예이론 저작을 번역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고, 《문예정책(文藝政策)》의 번역은 바로 그 첫 번째 결과물이었다. 그러나 량스츄는 문학을 정치적 수단으로 삼아 작가의 사상적 자유를 박탈하는 소련의 문예정책을 수용하는 것에 반대했다. 그는 루쉰의 루나차르스키(盧那卡而斯基)의 《예술론(藝術論)》 및 《문예와 비평(文藝與批評)》의 번역을 예로 들면서 ‘죽은 번역(死譯)’에 가깝다고 비판했다.<sup>62)</sup> 루쉰과 취추바이(瞿秋白) 등 좌익번역가들에게 있어 번역은 중요한 정치적 사명을 띠고 있었는데 그것은 맑스주의를 선전하는 이데올로기 투쟁의 일환이었다. 번역방식에 있어 좌익문예이론의 번역에 앞장섰던 루쉰은 가독성보다 충실성을 강조하였다. 이는 루쉰의 문화기획의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그는 전통을 뒤엎고 새로운 중국을 건설하기 위한 혁명으로서 번역작업에 착수했다. 루쉰은 이전의 번역가들이 높은 가독성에 가치를 두는 번역 전략을 취한 것을 겨냥하여 자신들 눈에 가장 친숙한 것으로 보여서 선택한 언어가 실은 가장

61) 王宏志, <翻譯與階級鬥爭—論1929年魯迅與梁實秋的論爭>, 《重釋“信、達、雅”：20世紀中國翻譯研究》, 東方出版中心, 1999, 240-272쪽.

62) 梁實秋, 앞의 글.

편향적인,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편향적인 언어였다는 점을 지적했다. 루쉰이 주장한 이국화(foreignizing) 번역책략은 외국텍스트의 이국성을 명백하게 드러내주는 번역일수록 좋은 번역이라는 생각을 전제로 한다. 저우쭈어런(周作人) 역시 ‘중국적이지도 않고 서양적이지도 않은 문장’<sup>63)</sup>을 만들지언정 중국화한 문장으로의 번역 즉 의역은 절대 안 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런 전제 하에 루쉰은 ‘딱딱한 번역(硬譯)’ 방식을 고수했는데 그가 번역해낸 어색한 문장은 중국어에 새로운 어법과 표현방식을 도입하려는 시도였다. 번역의 방법론에 있어서, 루쉰은 ‘딱딱한 번역’을 이상적인 번역으로 가는 중간지대에서 취하는 임시변통책으로 삼았을 뿐이다. 그는 실제로 ‘딱딱한 번역’의 폐단을 잘 알고 있었으며, 원작의 풍격을 그대로 간직하면서도 쉽게 이해되는 번역을 최상의 번역이라고 생각했다. 독자의 읽기 능력에 도전장을 내민 번역가로서의 루쉰의 이국화로의 번역 주장은 기존의 중국고전문학으로 하여금 외국적인 것에 대해 열리게 하였고 그로인해 중국문학은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다. 역설적이게도 이질적 문화를 최대한 이국화하여 번역하는 전략 덕분에 혁신적인 문체를 갖춘 새로운 텍스트를 생산해낼 수 있었다.

이로 인해 5.4시기 이래로 번역규범은 급격한 변화를 거치게 되어 청말民初에 가장 널리 애독되었던 린수의 번역은 비난받고 대신 우광젠(伍光建)의 번역이 모범 사례로 소환되었다. 백화문으로의 번역규범 확립에 큰 공헌을 했던 후스(胡適)는 원저의 신기(神氣)를 가장 잘 전달한 번역가는 알렉산더 뒤마의 《삼총사》<sup>64)</sup>를 번역한 《俠隱記》의 번역가 우광젠(伍光建)이라고 추켜세웠다. “근래 들어 직역하는 풍조가 시작되어 우리는 얼마간 영향을 받아서 부지불식간에 엄격한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최근 몇 십년동안 소설을 번역한 사람 가운데 내가 봤을 때는 伍昭屨<sup>65)</sup> 선생이 가

63) “中不像中, 西不像西” <點滴·序>(1920.4), 《周作人文類編》8, 湖南文藝出版社, 1998, 586쪽.

64) 원제는 Les Trois Mousquetaires.

65) 伍光建의 字가 昭屨였다.

장 뛰어나다. 그가 번역한 알렉산더 뒤마의 《俠隱記》 12책에서 사용한 백화는 가장 유창하고 분명하였고, 원문의 가장 정묘한 문구에서 그는 애를 써서 문자와 문장을 다듬기를 신중하고 엄밀하게 하여 좋은 문장을 만들어 내었다. 따라서 나는 그에게 가장 감탄한다.”<sup>66)</sup> 우광젠이 사용한 백화는 일종의 창신(創新)의 백화로 원서의 신기(神氣)를 가장 잘 전달하였기 때문에 그 가치가 린수보다 백배 높다고 칭송했다.<sup>67)</sup> 후스는 번역문체로 고문을 사용하면 서양서적의 특수성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sup>68)</sup> 왜냐하면 번역과정에서 고문의 문자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중국 전통의 사유방식이 그대로 투영되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청말민초 시기에는 번역자에게 있던 번역의 권위성이 5.4시기 이후에는 서양에 대한 인식에 있어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 원저 자체로 옮겨갔다.<sup>69)</sup>

## V. 1930년대 서양명저번역그룹

근대중국 번역사에서 1930년대는 서양명저의 번역시기로 유명하다. 1896년에서 1916년 동안 번역된 번역문학 중 세계적 문호의 작품은 10%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90% 이상이 2류 3류 작품이었다.<sup>70)</sup> 5.4시기로 접어들면

66) “近年直譯之風稍開，我們多少總受一點影響，故不知不覺地都走上嚴謹的路上來了。近幾十年中譯小說的人，我以為伍昭辰先生最不可及。他譯大仲馬的《俠隱記》十二冊，用的白話最流暢明白，於原文最精警之句，他皆用氣力煉字煉句，謹嚴而不失為好文章，故我最佩服他。”〈論翻譯—與曾孟樸先生書〉，《胡適文集》4，北京大學出版社，1998，613-614쪽.

67) “君朔所用白話，全非抄襲舊小說的白話，乃是一種特創的白話，最能傳達原書的神氣，其價值高出林紓百倍。”胡適，〈論短篇小說〉，《新青年》4:5，1918.5，403쪽.

68) “用古文譯書，必失原文的好處”胡適，〈建設的文學革命論〉，《新青年》4:4，1918.4，305쪽.

69) 關詩珮，〈從林紓看文學翻譯規範由晚清中國到五四的轉變：西化、現代化和以原著為中心的觀念〉，《中國文化研究所學報》48，2008，352쪽.

70) 郝嵐，앞의 글，1쪽.

서 번역계에서는 2, 3류 작품이 주종을 이루는 상황을 반성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1류의 작품을 우선적으로 번역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그러나 서양명저에 대한 번역 출판이 실질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은 20년대 말에 이르러서야 가능하였다. 이러한 번역계의 문학적 자각 외에도 세계명저에 대한 수요의 급증 역시 서양명저 번역출판의 상황을 가능하게 한 주요 원인이었다. 즉 신문학 작가들의 서양명저에 대한 독서 열기, 문과대학에 개설한 ‘문학사’ 교과목에서 세계문학 학습용 교재로서의 수요, 도서관 건립 급증 등으로 인해 서양명저의 번역출판사업은 전대미문의 큰 발전을 보였다.<sup>71)</sup> 1930년대 서양명저번역은 주로 총서(叢書)와 개별작가 전집(專集) 형태로 출간되었는데 그 중 대표적인 사례로 상무인서관이 출판한 ‘세계문학명저총서(世界文學名著叢書)’와 중화교육문화기금이사회 편역위원회의 명저번역을 고찰할 수 있다. 이는 번역기획자의 역할이 번역가보다 더 큰 영향력을 지닌 대표적 사례로서, 번역대상의 선정은 번역자 개인에 의해 결정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획한 편집자 또는 출판기구에 의해서였다. 이들 편집자 또는 출판기구는 당대의 정치 분위기와 대중의 구미에 맞추어 번역대상을 선별하는 경향이 강했다.

#### 1. 민국시기 최대 규모의 문학번역총서: ‘세계문학명저총서(世界文學名著叢書)’

왕원우(王雲五)와 허빙송(何柄松)이 이끌었던 상무인서관편역소(編譯所)는 1920년대 말부터 ‘세계문학명저총서’를 기획하여 출판하였다. 이는 1930년대 최대 규모의 외국문학명저 번역총서로 1933년에서 1937년간 집중적으로 출간되었으며, 101여명의 번역가가 투입되어 대략 154종을 번역 출판하였는데 18~19세기 서양문학이 주류를 점했다. 고골, 도스토예프스키,

71) 李金, 《二十世紀中國翻譯文學史: 三四十年代俄蘇卷》, 百花文藝出版社, 2009, 22쪽.

졸라, 브론테, 버나드 쇼, 펄 벅, 괴테, 타고르, 앙리 바타이유, 아나톨 프랑스 등의 대표작품이 번역되었다. ‘세계문학번역총서’의 가장 큰 특징은 앞표지에 원어로 원제와 원저자명을 중문제목과 함께 병기함으로써 원저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번역텍스트의 이국성을 부각시켰다. 뿐만 아니라, 번역저본과 번역가 방면에서도 전대와 비교했을 때 훨씬 진보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역본에 근거한 중역(重譯)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원서를 직접 번역하는 원칙을 정했으며, 해당 외국어 능력을 갖춘 우수한 번역자를 선별하여 번역을 맡김으로써 우수한 번역문학을 탄생시켰다. 이로 인해 근대번역문학사상 우수한 번역가로 꼽히는 푸뢰이(傅雷), 경지즈(耿濟之), 량스츄(梁實秋), 푸동화(傅東華), 왕랴오이(王了一), 여성번역가 루어위궈(羅玉君) 등이 탄생할 수 있었다. 1930년대 상무인서관이 배출해낸 번역가들은 대부분 해외유학과 출신으로 서구지식을 장악하여 사회문화적 권력층으로 성장하였으며, 그들은 자신들의 문화기획 의도에 맞추어 번역책략을 선택하였다.

## 2. 중화교육문화기금이사회 편역위원회 세계명저번역

중화교육문화기금이사회는 1924년 베이징 정부와 미국이 함께 설립한 문화학술기구였다. 1908년 6월 26일 미 의회는 의화단 배상금을 반환하기로 결정하고 반환된 돈은 중국이 문화학술사업에 사용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이로 인해 베이징에 설립된 중국교육문화기금이사회는 과학교육 근대화에 큰 공헌을 했으며, 1930년 편역위원회(編譯委員會)를 내부에 설치함으로써 외국명저번역에도 적지 않은 공헌을 하였다. 미국의 의화단 배상금의 지원을 받아 난징(南京)정부의 번역사업을 대신하는 번역관리기구가 창립됨으로써 번역은 훨씬 규범화되어 갔고 번역의 권위도 확보될 수 있었다. 즉 국가행정기구의 개입으로 번역은 합법성과 정통성을 획득할 수 있었다. 1930년 연말 설립된 중화교육문화기금이사회 편역위원회는 후스를 위원장에 장준(張准)을 부위원장에 선출했다. 이후 후스는 명원지양(丁文

江), 쉬즈모(徐志摩), 천인커(陳寅恪), 푸스넨(傅斯年), 자오위안런(趙元任), 원이뤄(聞一多), 량스쉰(梁實秋), 주커진(竺可楨) 등 13명을 위원으로 초빙하였다. 편역위원회는 자연과학부와 문학역사부 2개로 나뉘었고, 각 부의 사업은 3팀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그 중 하나가 '세계명저분야'였는데 과학, 철학, 문학 등의 영역에서 세계문화사에서 큰 영향력을 끼친 고전을 선정하여 해당 언어에 능통한 번역자를 초빙하여 번역출판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1939년까지 10년간 145종의 책을 편집 번역했는데, 그 중 64종이 인문학관련 서적이었다. 문학번역은 30종에 달했으며 1933년 착수하여 1936~37년간 집중적으로 번역되었다. 이들이 번역한 대표적인 작품은 셰익스피어, 하디(Thomas Hardy), 콘래드(Joseph Conrad)의 대표작과 그리스 고전문학 등이다. 셰익스피어와 토마스 하디 작품의 번역은 교수로 재직 중이던 량스쉰, 후스 등의 전문가 그룹이 맡았으며, 조셉 콘래드는 그들의 제자였던 량위춘(梁遇春), 천뎐(陳綿) 등 비전문가 그룹이 맡았다. 그리스 고전문학 번역은 주로 저우쭈어런과 뤼넨성(羅念生)이 맡았고, 프랑스문학은 천뎐과 리젠우(李健吾)가 맡았다. 그리스 3대 비극 작가 아이스킬로스,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의 작품을 모두 번역한 뤼넨성의 번역본은 현재까지 재판되고 있을 정도로 우수하다.

## VI. 마무리를 대신하며

앞에서 20세기 전반기에 활동했던 4대 번역그룹을 중심으로 근대중국의 번역문학의 특징과 변천과정을 일별(一瞥)했는데, 아쉽게도 5.4시기의 번역은 고찰하지 못했다. 이는 본고의 연구대상을 번역출판양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에 활동했던 번역그룹으로 제한한 탓이다. 사실 5.4시기에도 번역활동이 왕성했으나 그것은 번역서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다. 번역문은 우후죽순 격으로 창간한 신문잡지 매체에 연재되어 잡지 애독 열풍이 불었을 뿐 역서는 성황을 보이지 않았다. 여기에는 정치적 요인이 큰 작용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군벌의 탄압으로 인해 근대적 번역출판사업은 청왕조 말기의 활기를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다. 근대적 출판사업은 대략 1924년 국공합작으로 혁명군이 흥기하여 군벌타도를 외친 이후부터 점차 활기를 되찾기 시작하여 1928년에 이르러 번역 출판량이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sup>72)</sup> 5.4시기는 근대적 번역규범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근대번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이 시기의 번역문단은 청말민초 시기에 비해 번역 장르의 다양화, 문학적 자각의식으로 인한 번역의 질 향상, 러시아문학 및 약소민족문학의 번역 증가 등의 특징을 보였다. 5.4시기는 소설 이외에도 시, 희곡, 산문, 아동문학 등 다양한 문학 장르들을 번역하였는데 이는 중국의 신문학 건설에 풍부한 자양분으로 활용되었다. 문학사조 방면에서는 사실주의 대표작품을 번역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번역에 앞서 먼저 원저자의 생애와 유파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충실하고 세심한 번역 태도로 원저의 장점을 매몰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sup>73)</sup> 힘을 얻어 번역의 질이 향상되었다. 그리고 5.4 신문학 작가들 사이에서 청말민초 시기에 과학환상소설, 탐정소설, 모험소설 등 통속소설류의 번역에 치중하는데 대해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문학과 예술성을 갖춘 순문학의 번역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그리고 1921년 이후 부터 러시아문학의 번역량이 급증하면서 영국문학을 제치고 1위 자리를 차지했다. 5.4시기의 번역문단에 대한 더욱 상세한 논의는 차후에 별도로 논의해야 할 것이다. 이상으로 20세기 전반기 중국의 외국문학 번역사를 간략히 정리해 볼 것 같으면, 청말민초 시기는 전통의 틀 위에서 서양의 근대를 수용하는 태도에서 출발하여 실용적 가치를 지닌 통속류 작품을 우선 선별하여 중국적 외피를 씌워 번역했으며, 5.4시기는 문학적 자각의식이 싹터 순문학 중심의 번역으로 전환하여 서구적 가치와 서구적 문체를 가능한 이국화해서 번역했다. 이로써 근대적 번역규범은 기틀을 다질 수 있게 되었다. 1920년대 후

72) 王奇生, <民國時期的日書漢譯>, 《近代史研究》 2008:6, 48쪽 참조.

73) 愈之, <近代文學上的寫實主義>, 《東方雜誌》 17:1, 1920.1, 64-75쪽.

반에 이르러 좌익문학의 번역이 활발해졌고 동시에 정전으로서의 서양문학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여 번역계는 대작의 번역에 몰입하게 되었다.

### <參考文獻>

- 《新青年》4:5, 羣益書社, 1918.  
 《新月》2:6-7, 新月書店, 1929.9-10.  
 《梁啟超全集》1, 北京出版社, 1999.  
 《胡適文集》3·4, 北京大學出版社, 1998.  
 《魯迅全集》13, 人民文學出版社, 1981.  
 鐘叔河 編, 《周作人文類編》8, 湖南文藝出版社, 1998.  
 樽本照雄, 《清末民初小說書目》, 齊魯書社, 2002.  
 賈植芳, 《中國現代文學總書目·翻譯文學卷》, 知識產權出版社, 2010.  
 陳平原, 夏曉虹, 《二十世紀中國小說理論資料》1, 北京大學出版社, 1997.  
 王宏志, 《重釋“信達雅”——二十世紀中國翻譯研究》, 東方出版中心, 1999.  
 連燕堂, 《二十世紀中國翻譯文學史·近代卷》, 百花文藝出版社, 2009.  
 秦弓, 《二十世紀中國翻譯文學史·五四時期卷》, 百花文藝出版社, 2009.  
 李今, 《二十世紀中國翻譯文學史·三四十年代俄蘇卷》, 百花文藝出版社, 2009.  
 李憲瑜, 《二十世紀中國翻譯文學史·三四十年代英法美卷》, 百花文藝出版社, 2009.  
 鄒振環, 《影響中國近代社會的一百種譯作》, 中國對外翻譯出版公司, 1996.  
 羅新璋, 《翻譯論集》, 商務印書館, 2009.  
 王曉丹, 《翻譯史話》,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0.  
 阿英, 《晚清小說史》, 人民文學出版社, 1980.  
 郭延禮, 《中國近代翻譯文學概論》, 湖北教育出版社, 1998.  
 王志松, 《小說翻譯與文化建構》, 清華大學出版社, 2011.

- 方漢奇,《中國近代報刊史》,山西人民出版社),1981.
- 孔慧怡,〈重寫翻譯史〉,《二十一世紀》網絡版4,2002.  
<http://www.cuhk.edu.hk/ics/21c/supplem/essay/0111013.htm>
- 關詩珮,〈從林紓看文學翻譯規範由晚清中國到五四的轉變:西化、現代化和以原著為中心的觀念〉,《中國文化研究所學報》48,2008.
- 張佩瑤,〈西方主義的話語?—《黑奴籲天錄》個案研究〉,《中外文學》32:3,2003.
- 郝嵐,〈林譯小說與意識形態、出版機構的關係〉,《天津師範大學學報》186,2006.
- 郝嵐,〈通俗與經典的錯位——中國近代讀者視域中的柯南·道爾、哈葛德、凡爾納與大仲馬〉,《清末小說》31,2008.
- 郭延禮,〈近代翻譯偵探小說述略〉,《外國文學研究》1996:3.
- 王奇生,〈民國時期的日書漢譯〉,《近代史研究》2008:6.
- 永田小繪,〈中國翻譯史における小説翻訳と近代翻訳者の誕生—後編〉,《翻譯研究への招待》2,2008, [http://nikka.3.pro.tok2.com/translation\\_studies-vol2.pdf](http://nikka.3.pro.tok2.com/translation_studies-vol2.pdf)
- 김소정,〈번역과 굴절:『영클롬즈캐빈(Uncle Tom's Cabin)』의 중국적 재구성〉,《중어중문학》46,2010.
- Chan, Leo Tak-hung, "What's Modern in Chinese Translation Theory? Lu Xun and the Debates on Literalism and Foreignization in the May Fourth Period." *TTR: Traduction, Terminologie et Redaction* 14:2, 2001.
- Tsuen-hsuei Tsien, "Western Impact on China Through Translation", *The Far Eastern Quarterly* 13:3, 1954.

## &lt;中文提要&gt;

20世纪前半年, 在中国翻译界起了一鼓前所未有的西方文学翻译热潮。在晚清时期, 随着梁启超所倡导的小说界革命运动, 小说这体裁就成了改变社会、改造国民性的有效手段, 而晚清知识分子注意小说的功能, 以翻译西方的小说为当前急务。从1903年开始, 西方文学的翻译逐渐增加, 到1937年抗日战争之前为止, 无论规模、质量和影响层面都达到了前代中国翻译阶段所无法比拟的高峰。本文要在此其间活动的代表性译者群为主线, 清理中国近代外国文学翻译的历程。1903年至1937年间就出现了四大译者群, 按时序排列为晚清知识分子译者群、商务印书馆编译所译者群、左联译者群、30年代外国经典名著译者群。

首先, 晚清知识分子译者群侧重于所谓通俗文学的翻译, 尤以政治小说、科学幻想小说、冒险小说和侦探小说等, 因而晚清翻译引进的外国作品中, 世界名著等纯文学作品的译介尚属少数。第二, 在清末民初时期, 商务印书馆编译所刊行了两套翻译文学丛书即'说部丛书'与'林译小说丛书', 很受中国读者的青睐。这两套丛书就成为了解西方近代思想与文学的重要窗口。第三, 从1920年代末开始出现了以左联为中心的左翼文学翻译热, 大量引介苏联与东欧等社会主义国家的无产阶级文学及其文艺理论, 而且在翻译方法上, 明确提出'直译'的主张以逐渐克服晚清以来的'意译'风尚, 其异化翻译法使得现代白话翻译文体开阔新的发展空间。最后, 30年代外国经典名著译者群的代表性群体就为商务印书馆编译所的世界文学名著丛书译者群与中华教育文化基金会董事会编译委员会。商务的世界文学名著丛书, 作为30年代大型文学翻译丛书, 译介了多达154种, 尤其18、19世纪的西方文学占据主流, 译者群有101人之多。中华教育文化基金会董事会编译委员会由胡适就任委员长, 以促进有规模地组织翻译西方文学名著。中基会以赞助者(patronage)的身份, 在一定程度上对文本的选择与文本的改写进行干预, 对译书的诞生比译者还起了重要作用。

주제어 : 近代中国, 翻译文学, 译者群, 晚清知识分子, 商务印书馆, 左翼文学, 外国经典名著